

Park Jungsook

Min Harim

12.07 - 12.29

탈경계 색동화  
정원사

De-Boundary  
Gardener

MANSION9

## 일상 속 낭만(浪漫)의 순간을 붓질하며, 지각의 경계를 넘나들다

삶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인류는 해당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전일생을 바치며 연구하기도, 축적된 지표를 해석하기도 하며 다양한 분야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그러나 과연 그 본질이라 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멀리 그리고 저 심연 깊숙이 심원한 학문과 지식으로 저술할 수 있는 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삶의 본질은 누가 어떤 삶을 어떻게 일궈내는가에 따라 각자의 해답의 파노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맨션나인은 <De-Boundary Gardener 탈경계 정원사>를 통해 규정된 지각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각자의 시선으로 일궈낸 삶의 정원을 화폭에 그려 나가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는 민하림, 박정숙 두 작가를 소개한다.

민하림 작가는 가상과 현실이 혼재하는 이미지의 파도 속, 현대인의 삶을 수조(水槽)에 비유하며 독창적인 인공수조 풍경을 그린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조 내부를 인공적인 수풀과 장식들로 조성하는 모습이, 마치 현대인들이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 묵묵히 개개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인공적인 도시 모습과 유사하다는 작가의 위트가 담긴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수조 내부에서 벌어지는 세계는 일상 혹은 영화나 소셜미디어 등의 픽션, 논픽션 이미지를 채집하고 가공된 결과로 기존의 관념적인 지각을 흐리는 새로운 개념의 풍경을 탄생시킨다.

낭만, 낭 : 浪 물결 량 / 만 : 漫 질편할 만

지각의 경계를 드나들며 인간의 삶 속 불확실한 이미지 조각들을 마치 수족관 내 인공생태계의 장치로 풀어내던 민하림 작가의 인공수조 풍경은 2024년 변곡점을 맞는다.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며 단단한 수조 프레임이 담아내던 삶이 가지는 '유한성'에 대해 각성하는 시간을 보낸다. 큰 상실의 경험은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 본인 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대상들, 그 힘찬 생명의 움직임들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곧 허망함과 무기력함이 다가왔지만, 그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 한 켠에 삶을 바라보는 '긍정'을 자리하기 위한 시도로 수족관을 뒤엎는다. 작가가 시사하는 긍정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떨치기 위함이 아닌 내 자신에게 닥친 휘몰아치는 현재의 순간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하림 작가는 삶을 긍정하기 위한 인정을 붓질로 승화하여 매 순간을 묵묵히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수면 위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용기와 치유를 얻는다. 이번 신작에서는 유한한 삶 속에서 각자 지니는 '낭만'의 감각을 강조하며, 개인의 서사를 확장해 인간 삶의 본질에 더욱 집중한 새로운 시각적 표현을 선사한다. 유한성에 대한 각인을 통해 매 순간을 행복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낭만적 경험들을 작가는 기존의 물 속 이미지를 강조했던 시점을, 물결의 파동이 일렁이는 수면의 층으로 옮겨가며 살아있음의 근간이 되는 '물'을 과감하게 표현한다. 일상의 아름다운 대상들은 물결의 파동과 기포가 쌓여 더욱 과감히 일그러지며, 작가는 물의 흐름에 그 실존을 내맡기며 관객으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되문게 한다.

박정숙 작가는 삶을 살아가며 소소하게 포착가능한 일상의 흔적을 꽃, 바다, 산과 들 같은 자연의 심상으로 화폭에 남긴다. 박정숙 작가의 풍경화는 얼핏 보면 자연물이 제공하는 치유적 성향을 전하는 그 단편에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7세의 나이, 노장이 겪은 전장이 무수히 많듯 작가의 붓질은 곧 삶을 표현하는 무기이자 펜촉으로, 생을 함축한 일련의 방백(傍白)을 기록한다.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 월남민으로서의 가정형편 때문에 현실에 치여 그림에 향한 열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작가가 좇고 있는 삶의 본질은 결국 끝없는 색과 대상에 관한 시각적 탐구였듯, 자녀가 장성한 후 반세기를 살아온 시점 다시 불 지핀 그 열정은 오늘날 4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작품 속 도상들에서 특히 꽃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작품명에 명시되어 있듯 표면적으로는 정물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분에 담긴 꽃을 정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17세기 네덜란드 지역에서 파생한 바로크 시대 정물화 구도와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박정숙 작가가 해석한 '꽃'이라는 소재는 정물의 정적인 느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풍경의 꽃"으로 재탄생한다. 배경과 정물 꽃이 분리되지 않은 채 서서히 순화되어 나가는 붓터치와 부드러운 빛의 효과는 기존의 관념적인 원근법을 잊어버리며 강조되는 색감을 통해 작가가 집약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해볼 수 있다. 화폭을 조금 더 깊이 오래 음미하다 보면 곧 시야에 추상적인 색면과 두터운 물감층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시 작품이 걸려있는 현실로의 지각을 유도하며 꽃의 정물적 역할에 대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적 풍경으로 볼 수 있다.

50년. 반세기가 차이 나는 시대를 살아온 젊은 청년작가와 인생의 증인인 원로작가, 두 작가가 바라보고 붓질을 통해 해석하는 삶의 본질. 이는 대단히 심오한 철학도 사상도 아닌, 작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낭만에 충실할 뿐이다. 청년 그리고 원로작가가 조우하며 펼치는 이번 전시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행복한 순간을 되새기며, 잠시 쉬어 가는 한 장의 페이지로 비추어 질 수 있길 바란다.



# Park Jungsook

## 박정숙 (b.1938)

**개 인 전** 2018 개인전-부산 아트페어 부스전 (BEXCO, 부산)  
 2017 개인전-부산시청 제2전시실  
 2015 개인전-부산 아트페어 부스전 (BEXCO, 부산)  
 2009 개인전-롯데화랑 부산본점  
 2007 개인전-롯데화랑 서울 소공동 본점 명품관(에비뉴엘)  
 2001 개인전-롯데화랑 부산본점

**초대 / 단체전** 2000-2017 부산회화제 (부산문화회관)  
 부산미술제 (부산문화회관)  
 느낌회 정기전 (시청 제1전시실)  
 2010 한-중-일 교류전  
 2005 영호남 교류전 (대구문화화랑)  
 삼색화모니전 (자미온갤러리)  
 2004 타워여류전 (타워갤러리)  
 2003 타워여류전 (타워갤러리)  
 1998 가로세로전 (부산 현대갤러리)  
 그 외 다수

**경 력**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회원  
 현) 학교법인 웅동학원 이사장

**수 상** 2010 울산한마은미술대전 특선  
 경인미술대전 입선  
 2004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국립현대미술관)  
 부산미술대전 입선  
 2003 부산미술대전 입선 (부산시립미술관)

**작 품 소 장** 부산대 양산대학병원, 부산대 의학전문 대학원, 부산간호대,  
 진해여고, 진해문화회관, 진해 웅동중, 부산 대광명사  
 그 외 다수

### “일상 속 낭만의 순간을 흔적하다, 정물을 확장한 풍경”

박정숙 작가는 삶을 살아가며 소소하게 포착가능한 일상의 흔적을 꽃, 바다, 산과 들 같은 자연의 심상으로 화폭에 남긴다. 작품 속 도상들에서 특히 꽃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기호를 엿볼 수 있다. 작품명에 명시되어 있듯 표면적으로는 정물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분에 담긴 꽃을 정측면으로 바라보는 시점은 17세기 네덜란드 지역에서 파생한 바로크 시대 정물화 구도와 유사하게 느껴진다. 그렇지만 박정숙 작가가 해석한 ‘꽃’이라는 소재는 정물의 정적인 느낌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풍경의 꽃”으로 재탄생 한다. 배경과 정물 꽃이 분리되지 않은 채 서서히 순화되어 나가는 붓터치와 부드러운 빛의 효과는 기존의 관념적인 원근법을 잊어버리며 강조되는 색감을 통해 작가가 집약하는 삶의 본질에 대해 사색해볼 수 있다.

# Artist's Note

## 박정숙 - 풍경으로 일궈내는 일상의 흔적

자식처럼 공들여 가꾼 우리 정원에 계절 따라 피는 꽃들  
생일날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화려한 장미꽃들  
전시회 때 친구들이 안고 오는 고상한 꽃들과, 산책길에 발길을 멈추게 하는 소박한 들꽃들을  
그림으로 남기며 삶의 기쁨과 보람으로 그림과 함께 늙어 갑니다.

어린 시절 꿈과 낭만을 키워준 아름다운 진해와 반세기를 살아 온 정든 부산의 푸른 바다와 근교의  
산과 강들을 오가며 화폭에 담은 풍경들, 이것이 나의 일상이며 흔적입니다.  
시와 수필로 표현하기 부족한 나의 한계.  
색채와 향기 어린 분위기와 감각, 그리고 감동과 감격을 그림으로 얼마나 표현할 수 있었을지..

마치 학교숙제를 다 해놓고 책을 읽을 때의 여유로운 마음처럼 긴 세월 내 몫을 다하며 여가를 틈타  
열정을 쏟은 나의 분신 같은 그림들을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펼쳐 보입니다.

### 2024 신작에 관한 해설

#### <전주전동성당>

유난히 덥고 길었던 올 여름.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시월을 맞이하면서.  
전주전동성당 앞에 만발한 백일홍 꽃을 보니  
초가을 맑은 하늘과 고전적인 성당을 보니 왠지 알고 싶더이다.

#### <동백꽃 숲>

몇년전 충무 앞바다 동백섬에 만발한 동백꽃 숲을 사진 찍어 두었다가  
가을 하늘과 접목시켜 보았습니다.  
하늘과 꽃을 그리니 내 마음이 시원하고 정화되는 것 같더이다.  
기분 좋게 작업을 마무리 지으며 이번 전시에 선보입니다.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전주전동성당

Oil on canvas

2024

80.3x116.8 cm (5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동백꽃 숲

Oil on canvas

2024

80.3x116.8 cm (5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부겐베리아(2)**

Oil on canvas

2013

90.9x65.1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노란국화와 나리꽃 정물

Oil on canvas

2012

72.7x53 cm (2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노란꽃 정물**

Oil on canvas

2018

27.3x40.9 cm (6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분홍꽃 정물  
Oil on canvas  
2017  
33.4x45.5 cm (8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분홍꽃 정물**

Oil on canvas

2015

27.3x45.5 cm (8호)

[De-Boundary Garde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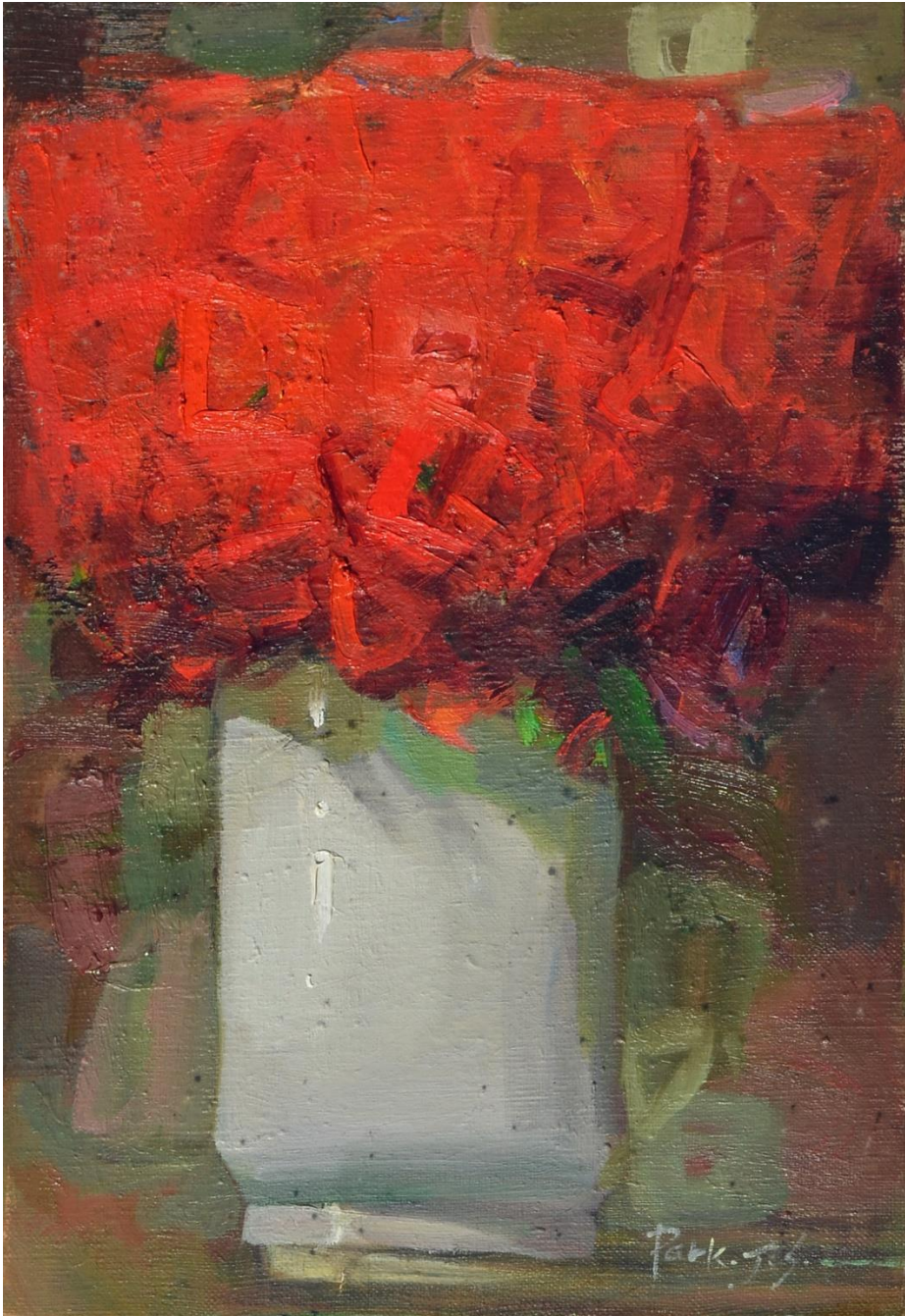
# Art Works



**빨간 장미 정물**  
Oil on canvas  
2011  
40.9x27.3 cm (6호)

[De-Boundary Garde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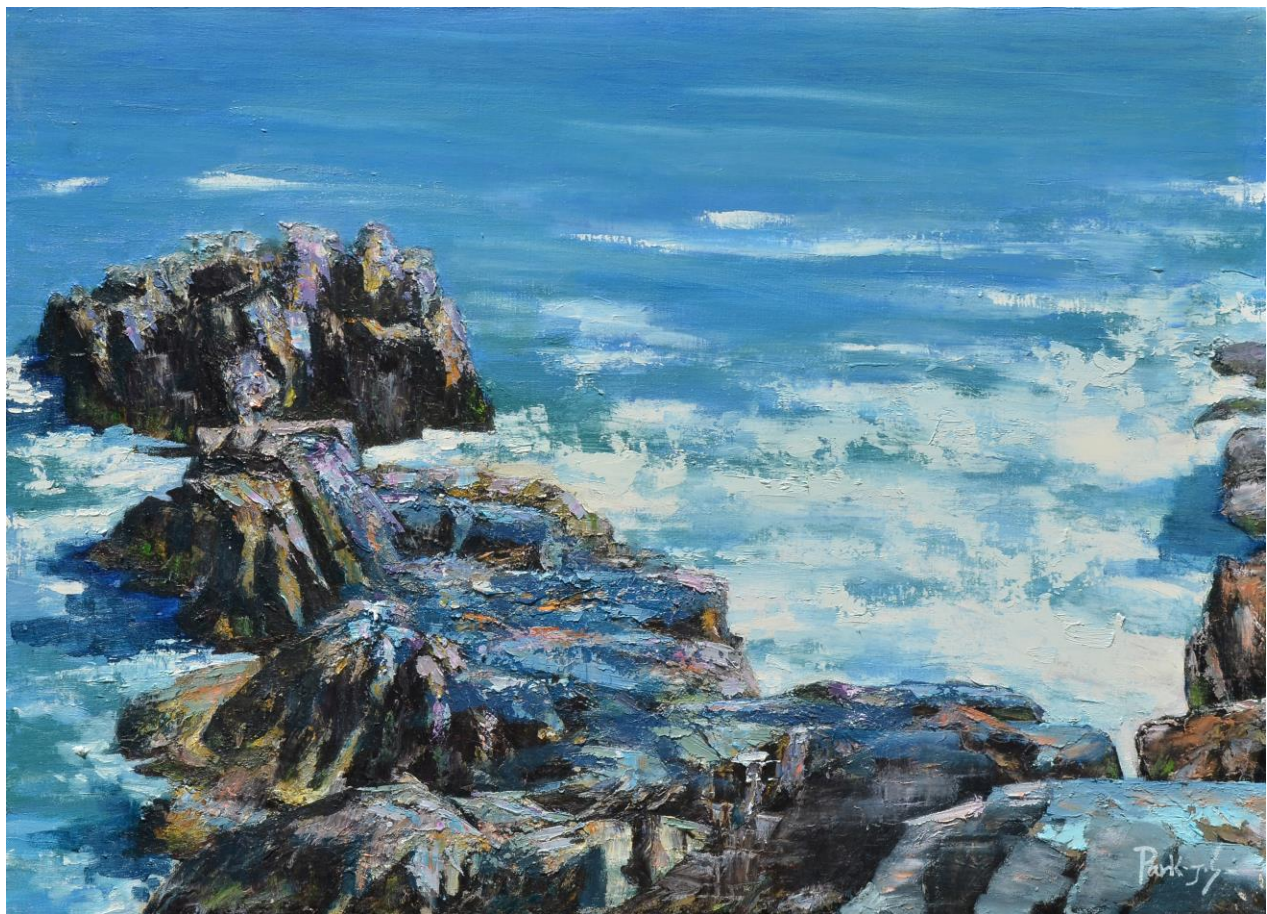
# Art Works



**빨간꽃 정물**  
Oil on canvas  
2010  
27.3x40.9 cm (6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바다**

Oil on canvas

2016

90.9x65.1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바다

Oil on canvas

2016

90.9x65.1 cm (3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바다**

Oil on canvas

2018

60.6x72.7 cm (20호)



[De-Boundary Gardener]

# Art Works



태종대 등대  
Oil on canvas  
2014  
53x45 cm (10호)

## 작품 문의

변승연 큐레이터  
[tmddus97@mansion9.co.kr](mailto:tmddus97@mansion9.co.kr)  
070-4267-7371  
010-5144-6658

(상담 가능 시간 : 10:30-19:00)



<https://www.mansion9.co.kr/>

@mansion9\_official